

뚝심 있는 군정 추진으로 변화 이끈다

민선 9기 한득수 임실군수호 출범 의미·기대... 1호 행정 결재로 농촌기본소득 지급 검토

7월 1일 민선 9기 한득수 임실군정의 출범을 앞두고 한 당선인의 '뚝심 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축산 농업인으로 출발해 재산 축협 조합장을 거쳐 단 한 번의 도전으로 군민의 선택을 받은 한 당선인의 강한 추진력과 현장 중심 리더십이 임실 발전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권은 물론 군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임실군은 무소속 군수가 2014년부터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중앙정부 및 전북도와 유기적 소통없이 독자적인 생존 노선을 걸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임실군 국가 예산이 5천 억원 대에 머물고 있으며, 임실 미래 발전을 위한 대형 국책 사업도 별반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과거 무소속 임실군정의 닫힌 행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당선인의 비전은 크게 집권 여당 군수로 비약적인 국가 예산 확보, 대한민국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임실 행정,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으로 환속되고 있다.

한득수 군정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득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집권 여당 군수로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한 당선인은 지난 26일 박희승 국회의원(민주당 남원·장수·임



7월 1일 민선 9기 한득수 임실군정의 출범을 앞두고 한 당선인의 '뚝심 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순창 지역위원장)을 만나 임실군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한득수 군수 취임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임실군도 함께 참여 '임실뚝'을 단단히 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이재명 정부에는 전북 출신 장관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도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뛰어줄 든든한 세력들이 준비돼 있다.

특히 한 당선인의 취임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주당 원팀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전북자치도 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이 민주당 원팀으로 구성되면서 중앙

정부의 대규모 발전계획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

마지막 한 당선인의 주안점은 '임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 30만 원 전 임실 주민 지급'을 취임 후 1호 결재로 검토하고 있다.

한 당선인은 제9기 임실군수직 인수 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문제에 대한 확고한 투자를 통해 정주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해 3만 임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효과 입증

임실군, 독거노인 주택 화재 조기 발견... 119 신속 출동 조기 진압

임실군이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독거노인 주택 화재 조기에 발견해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은 이번 사건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응급관리요원의 빠른 대처를 꼽았다. 소방관은 "일반적인 화재 현장은 물을 많이 뿌려 집안이 흥건해지지만, 이번에는 빠른 신고 덕분에 냉장과 불탄 진압하면 됐다"며 "주방에만 약간의 물이 고인 정도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잘 대응해 준 덕분이다"고 말했다.

임실읍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 5분, 임실읍 신안리에 거주하는 김모 씨(90)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당시 김 씨는 밤에서 일을 하고 있어 화재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즉시 작동했다.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자 시스템은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화재 경보를 전송했다.

이제는 응급관리요원은 즉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으나, 김 씨는 밤에 있어 화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가스불도 잘 끄고 나왔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응급관리요원은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 장비의 게이트웨이에 영상통화를



걸어서 집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대상자에게 빨리 집으로 가보라고 알려주고, 119 출동 여부를 재확인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속히 출동해 오전 9시 43분경 화재를 진압했으며, 자칫 주택 전체가 전소될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더욱이 산악지역 화재가 잦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것도 막을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이후 이씨는 응급관리요원은 시니어클럽 역량강화사업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들고 있는 김효정 응급안전안심서비스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가 불안에 떨고 있던 김 씨를 안정시키고, 화재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결을 지키며 지원을 이어갔다.

이번 사례는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응급관리요원이었고, 자동신고 시스템과 현장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건강증진사업 2관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남원시보건의소(소장 한용재)는 6월 30일, 서울 GS타워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개최된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 △중증 추진 사업 영역(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우수기관으로 동시에 선정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시민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중점 추진 사업 영역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남원시보건의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상담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한옥전통 호텔 명지각 3관 개관

남원시는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온 남원 한옥체험조성사업 명지각 3관을 개관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지각 3관은 남원시 쌍교동 18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7억 원(도비 19.5억 원, 시비 37.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54.9㎡, 지상 1층 9동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6객실 독립 객실을 갖춘 한옥 숙박 체험시설이다.

이 시설은 2022년 사업 착수 이후, 2024년 12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년 5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 운영은 명지각 1·2관을 2024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주)스튜디오가 맡아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 9동으로 구성되며, 6객실(6인실 2실, 4인실 4실), 부속(스파시설) 2동, 창고 1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초선의원 직무연수 돌입

남원시의회가 제10대 임기 시작에 따라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에 돌입했다.

제10대 초선의원 8명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초선의원 직무연수'에 동참해 본격적인 의정 실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제10대 초선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 기초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도록 돕고,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프로그램은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핵심 실무 과목 중심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조례안 입안 및 심사 기법 △예산·결산 심사 요령 등 기본 직무 교육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울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관 확립을 위한 △지방의원 공무원의 출장 기준 및 사례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및 예산 심사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하야시다 리코, 순창오픈 정구대회 2관왕

순창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공설운동장 실내다목적구장에서 열린 '2026 순창오픈 종합 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한정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실업정구연맹, 전북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 36개 팀과 필리핀, 태국, 인도 등 8개국에서 참가한 외국인 선수 80여 명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출전하며 국제 규모의 대회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순창군청 직속운동경기부 여자정구팀 소속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하야시다 선수는 여자 개인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혼합복식에서



도 정상에 오르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순창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제 수준의 실내 정구 인프라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한편,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물놀이 명소 2곳 개장

남원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의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줄 여름철 물놀이 명소 2개소를 7월 1일부터 본격 개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창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요천 수경 물놀이장'과 푸른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교통공원 산림목장 물놀이장'으로 각기 다른 매력과 특색을 살려 여름철 남원을 찾는 가족에게 최고의 피서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놀이시설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 요천 물놀이장은 하루 3회(1회차 10:30~12:00, 2회차 13:30~15:00, 3회차 15:30~17:00) 회차별 90분이며, 교통공원 물놀이장은 10시부터 17시까지 회차별 50분씩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